

4대 핵심과제 5.2조 투입... 2030년 친환경 매출 6兆 목표

(친환경강화·자원순환·기후위기대응·그린생태계 조성)

롯데화학BU 친환경 사업 구체화

화학BU 내 친환경 협의체 구성
각 사 시너지 제고·전략적 운영
PCR소재 확대로 환경규제 대응

롯데그룹 화학BU가 2030년까지 친환경 사업 매출 6조원 달성 및 탄소중립 성장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전략과 목표를 발표했다.

롯데그룹 화학BU는 2일 오전 김교현 화학BU장이 Green Promise 2030 이니셔티브를 도입하고, 친환경 사업 방향성 설정 및 추진과제의 구체화를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구를 지키는 진심 어린 발걸음'의 의미가 담긴 슬로건 'Every Step for Green'을 발표하며 친환경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성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롯데그룹 화학BU 주요 회



김교현 화학BU장 겸 롯데케미칼 통합대표이사(왼쪽 세 번째)와 김연섭 롯데케미칼 ESG경영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롯데 화학BU의 친환경 목표인 'GREEN PROMISE 2030'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사(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 롯데비피화학)들은 ▲친환경사업 강화 ▲자원순환 확대 ▲기후위기 대응 ▲그린생태계 조성 등 4대 핵심과제에 약 5조2000억원 규모의 전략적 투

자를 확대하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롯데 화학BU 내의 친환경 협의체를 구성해 각 사의 전문 분야에 따른 아이템 발굴과 시너지 제고로 전략적인 운영을 추진한다.

먼저 화학BU 내 각 사의 친환경 사업 매출 규모를 20년 대비 약 10배 성장시켜 2030년에는 약 6조원 규모로 성장시킨다. 미래성장성, 사업연관성 등을 고려해 친환경 스페셜티 소재 부문을 확대하고 자원순환과 연계한 리사이클 소재 사업도 강화한다. 또한 화학BU 내 회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그린 에너지 소재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글로벌 고객사들의 재생소재 사용 증가 및 각종 환경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PCR(Post Consumer Recycled) 소재인 rPET, rPC, rPP, rABS 등의 사용도 확대한다. 또한 폐플라스틱의 가스화를 통한 원료 재사용, 폐플라스틱의 물리적·화학적 재활용 방안을 연구 개발해 리사이클 제품 판매를 100만톤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배출량 절감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증가 없는 탄소중립성장을 첫 번째로 추진한다.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30년에도 2019년 수준의 배출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사회와 공감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환경 구축에 집중하기 위해 제품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 대기오염물질, 폐수 등의 환경 영향 물질 50% 저감 목표로, 폐기물 발생량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며 노후 방지시설 최적화와 공정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롯데그룹 김교현 화학BU장은 "롯데케미칼을 포함한 화학BU 내 모든 회사들은 올해 ESG경영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펼쳐나갈 것"이라며 "고객, 주주, 사회와 적극 소통하고 공감하며 각 기업의 미래 가치 향상이 사회의 긍정적 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회장 연봉반납에도 노조 반발 "PS기준 공개해야"

(성과급)

SK하이닉스 노사 갈등

실적 반등에도 성과급 지급 몰살
새로운 임금체계 부당 주장도

SK하이닉스가 실적 반등과 M16 준공 등 경사에도 크게 웃지는 못하는 모습이다. 성과급 지급 등 문제로 직원들 불만이 커지면서다. 일단 최태원 회장 등 임원들은 소통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갈등 해소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일 이전 SK하이닉스 본사에서 열린 M16 준공식에서 지난해 SK하이닉스 연봉을 반납하고 임직원들에 나누겠다고 밝혔다.

반납되는 연봉은 3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 임직원은 지난해 3분기 기준 2만8894명. 1인당 약 10만원 수준이다.

최 회장이 연봉 반납이라는 강수를 꺼내든 이유는 성과급(PS) 지급안에 불만이 커진 탓이다. 지난해 실적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성과급(PS) 지급안이 전년과 같은 400%로 결정되면서 항의가 잇따랐던 것. 한 직원은 사내 전체 메일로 성과급을 향한 강한 반발 의견을 냈고, 준공식 행사장에서는 노조 등 직

원들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만도 컸다. 성과급 지급 이후 직원들이 사내 커뮤니티와 간담회 등에서 임원들에 해명을 요구했지만 명쾌한 답을 받지 못했던 것.

이에 따라 임원들도 직접 화해를 청하고 나섰다. 박정호 부회장이 1일 노조들과 만나 소통을 약속한 데 이어, 이석희 CEO도 2일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에 성과급 수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룹에도 일부 직원들은 PS 지급이 단지 '트리거'일 뿐이라며 사측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당장 성과급 지급 기준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크다. 사측이 성과급을 영업 이익을 중심으로한 'EVA'라는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부터 공식 시행되는 '셀프 디자인'도 문제다. 셀프 디자인은 SK하이닉스의 기술사무직을 대상으로한 새로운 임금 체계로, 임금을 세분화해 같은 고과라도 다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직원들은 임원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보통 수준 인사고과인 'B'를 받아도 연봉을 깎을 수 있고 직원들의 동의도 제

대로 받지 않았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은 이같은 제도가 직원들에 불리하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EVA가 투자 계획 등 대외비를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수는 없지만, 성과를 기준으로 한 제도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며, 지난해 실적 악화에도 보정해 지급한 탓에 올해 성과급이 적어보이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셀프 디자인도 상대방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할 제도로, 이미 3년여간 시험 운영하면서 임금 삭감 등 부작용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인사제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사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내부 승진 적체 등으로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

다만 공식상 임원들 중에는 이석희 CEO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당수가 내부 승진자라는 점과, 인사 제도가 불가피하게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의견이 다소 갈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해 의견 개진이 자유로운 편이라 불만도 많다"며 "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나선 만큼,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용 기자 juk@



LG전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인증식. 박일평 사장과 전문가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LG전자

LG전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51명 육성

AI·빅데이터 등 사내 기술역량 제고

LG전자가 소프트웨어 전문가 육성을 이어갔다.

LG전자는 1일 소프트웨어 전문가 인증식을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사내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한 소프트웨어 전문가 51명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전문가로 인증하는 자리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코딩 등 분야에서 선발했으며, 그 중에서도 AI와 빅데이터 전문가는 서울대학교와 한국과학기술원 등 국내

대학교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등에서 프로젝트 수행 및 교육을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성능 개선, 문제 해결을 주도할 뿐 아니라 직원들의 멘토 역할도 맡게 된다. 임직원 대상 기술 세미나로 사내 역량 제고에도 기여한다.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은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 고객가치를 높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삼성중, 지난해 영업손실 7664억

전년보다 적자 24.3% 증가
"올해 해양생산설비 수주 박차"

삼성중공업이 지난 2020년에도 적자를 이어갔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 7664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적자가 24.3% 증가했다고 2일 공시했다. 갈

은 기간 매출액은 6조8603억원으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다.

당기순손실은 1조2029억원으로 8.6% 줄었다.

삼성중공업은 "영업손실 확대의 주요 원인은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올해 연결기준 매

출액 7조1000억원으로 전망하고 78억 달러 규모의 선박 수주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해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유가 급락 영향으로 수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며 "올해는 발주 개선세가 확연한 컨테이너선과 유가 회복에 따른 해양생산설비 수주를 통해 반드시 경영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OLED, UL서 '야외 시인성' 인증

(안전인증 회사)

삼성디스플레이 휘도 1500니트 구현

삼성OLED가 야외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인정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글로벌 안전인증 회사 UL에서 '야외 시인성'을 확인받았다고 2일 밝혔다. 갤럭시S21 울트라 등에 탑재되는 모델이다.

UL은 삼성 OLED를 색영역과 휘도 등을 측정해 밝은 환경에서의 색영역으로 DCI-P3 기준 73%를 충족하고 휘도도 1500니트 이상이라고 봤다.

주변 환경이 밝은 상황에서도 글자나

색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얘기다.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며 색을 표현하는 특성상 색 영역이 넓고 고체도 색감을 표현해 상대적으로 선명한 화질을 낸다.

내부 평가에서도 삼성 OLED는 밝은 환경에서 색영역이 야외에서 73%로, 30% 수준인 LCD보다 2배 이상 우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신규 유기재료를 적용해 1500니트 이상 휘도를 구현하며 야외 시인성을 더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재용 기자